

'99 물관리 종합대책

박원출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

1. 처음말

물은 인류와 지구상 동식물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많은 물질들이 발견되고 에너지원도 목재, 석탄에서 석유, 가스 그리고 원자력, 태양열 등 여러 형태로 발전되어 왔지만 물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지구자원이면서 모든 생명체의 존재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인류는 근대화, 산업화 명목으로 물을 마구잡이로 개발, 오염시켜 왔다. 지난 30년간 지구상의 인구는 약 8배 증가했지만 물사용량은 35배나 증가하였다. 지구상의 물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 그 총량은 일정하고 또한 한정되어 있다. 더우기 환경훼손으로 인한 사용가능한 물은 점점 적어지고 있는데 반해 앞으로 인구증가와 생활수준향상으로 물사용량이 매년 2~3%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장차 물은 인류의 삶을 위협할 수도 있어 물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한 책무라고도 할 수 있다.

"Silent Spring"의 저자인 Rachel Carson은 이미 40여년전에 "인간이 자신의 근원을 잊어버리고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시기가 되면 물은 그들의 무관심 속에서 희생되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물문제에 대한 사전 경종을 예고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물부족이나 하천환경훼손을 생각할 때 물문제에 대하여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물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많다.

21세기를 바라보는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물문제를 심도있게 숙고하여 우리 세대는 물론 우리 후손들이 물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최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2. 우리나라 물 문제

우리나라는 일인당 수자원부존량이 세계평균의 1/11에 불과한 물부족국가이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용담, 남강, 횡성 등의 다목적댐이 계획대로 완료된다 해도 10년 뒤면 물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겨울 가뭄시에 도서지방이나 경북내륙 지역처럼 상습적으로 식수난을 겪는 지역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천의 오염으로 이용가능한 하천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댐 건설 적지 부족,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수자원 확보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하수의 경우도 전체 수자원이용량의 10%정도인 연간 약 33억톤을 이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지질 구조상 대규모 개발이 곤란하고 그나마 최근 지하수오염이 심하여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요관리제도도 미흡한 실정이다.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하수도 요금은 물 낭비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으며, 노후관으로 인한 수도누수율도 선진국의 10% 정도에 비해 15%안팎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질측면에서도 전국 하천을 이용목적에 따라 195

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수질목표를 설정·관리하고 있으나, 목표 달성율은 20%에 불과하다. 4대강 수계의 중·상류에 인구 및 산업시설, 유흥업소 등 오염원의 증가에 따라 수질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갈수기에는 유량이 부족하여 하천의 자연적 정화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하수 처리율이 61%에 불과하고 하수처리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수질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물부족과 하천수질악화는 위천공단, 영월-제천간 취수장건설분쟁, 용담댐 등 상·하류간의 분쟁 등 지역이기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수자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물 관리 방향

앞으로 물관리 기본방향은 한마디로 「자연과 조화되는 그린경제(green economics)」의 구축에 두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환경문제의 극복은 새로운 도전이며, 다가오는 21세기에는 한 나라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환경문제는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더우기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의 등을 계기로 범 지구적 환경보전을 명분으로 한 통상압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어 물문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DJnomics에서도 물관리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 현재와 미래가 같이 발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정책내에서 추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한강, 낙동강 등의 수질문제나 새만금, 영월댐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환경이 일부 환경단체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국민 나아가 전세계인의 공통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산업화, 도시화 등에 따른 생활 및 산업, 축산폐

수는 강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토양을 오염시키고 산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또한 지난 겨울 가뭄에서도 나타났듯이 조금만 강우부족이 지속되면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다.

게다가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소득증가와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라 갈수록 높아가고 있으며, 시민단체에 의한 환경감시는 국가의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물관리 정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물관리정책은 아직까지 구호성에 그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개념을 하루빨리 실질적으로 정착시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규 수자원의 개발에 앞서 물절약 대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수자원개발과 수질보전을 개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호연계된 통합관리개념으로 다루어야 하며, 수질보전을 위해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아니라 오염처리능력을 고려한 지역별 오염총량할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개발과 함께 가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물문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토대 위에서 검토·추진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물정책이 아니고 국민의 물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개개인 모두 물문제에 자발적,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미 정부는 국가 각종 물관리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시민단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으며, 각종 현안문제도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각 지역의 물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에서 우선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4. '99년도 물관리종합대책

정부는 물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6.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관리종합대책기본계획('96-2011)』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실에 수

질개선기획단을 설치하여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물관리정책을 통합·조정하고 있으며, 매년 세부실천 계획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목표인 “전국 어디에나 맑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모든 상수원을 Ⅱ급수이상으로 개선” 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까지 총 90조 8,000억원(수량부문 62.2조원, 수질부문 28.6조원)을 투자하여 다목적댐, 광역상수도건설외에도 수원함양림, 해수담수화, 강변여과수, 기상예보능력향상 등 다양한 수자원 확보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수도요금현실화, 중수도 보급 등 물수요관리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수질관리대책으로서 2005년까지 하수보급율 100%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1월 『팔당호등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대책에서 처음으로 하류주민들이 물이용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부담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비용 등에 충당토록 하는 획기적인 “물이용부담금제”를 도입하여 상수원 상·하류간 갈등을 극복하고 공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환경기초시설확충과 수질관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양여금 수질개선사업 배분비율을 상향조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오염에 취약한 주요 하천연변 일정구간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입지를 규제함과 동시에 비점오염원까지 관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하천의 환경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 대책은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위하여 오염총량관리를 도입하는 등 사전예방적 차원의 상수원보호정책의 출발점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당해 지역의 시·도지사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물시책을 지역 스스로 협의·해결하는 자치적인 협의체계를 갖추기도 하였다.

금년도에는 한강의 경우를 모델로 삼아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물관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이 유역들은 팔당댐 상류에 대도시가 없는 한강과는 달리 대부분 중류지역에 대도시들이 위치해 있어 배출

규제 등 오염원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수질대책 뿐만 아니라 하류지역에 대한 수자원공급방안도 함께 연계하는 종합적인 대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낙동강은 지난해 실시한 환경기초조사를 토대로 금년 상반기까지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강, 영산강은 '99. 6까지 환경기초조사를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물수요량의 과다추정논란, 녹색댐의 개발요구, 물수요관리강화 등 정부 수자원정책에 대한 비판이 빈번해지고 있어 국가수자원장기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자원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해 금년도에 전국을 대상으로 유역별, 권역별로 장래 물수요량을 각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미 건교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인당 물수요량, 물값현실화에 따른 물절약, 노후관교체 등에 의한 물수요관리효과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물수요추정기법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앞으로 조사과정에서도 환경단체,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하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금년도 조사가 끝난후 내년도에 공급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다목적댐건설외에 지하수개발, 강변여과수, 유역간 물이동,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공급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무분별한 지하수개발과 방치된 폐공 때문에 날로 심각해져가는 지하수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물값현실화, 물절약, 중수도의 도입 등 물수요관리정책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수질부분에 있어서도 오염배출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오염발생단계에서 사전정화를 철저히 하며, 상수도지역에 대한 입지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이로 인한 재산권행사, 경제활동 등에 불이익을 받는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강에 처음으로 적용한 오염총량제도를 모든 유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상반기중에 마련하고 이의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및 지침도 마련할 계

획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소 소홀하였던 군부대 오염수처리문제, 폐광산 폐수유출문제, 농경지 등 비점오염원관리등에 대하여도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수량과 수질관리의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수계별로 수량 및 수질에 관한 기초조사를 강화하고, 물 관련 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물관리정보화기본계획을 금년중에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환경단체 등과 함께 민간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새만금호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댐안전성, 생태계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영월다목적댐사업에 대하여도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각종 현안과제외에도 다목적댐 및 상수도건설, 환경기초시설의 확충등 금년도에 총 5조 6,040억원(수자원분야 30,194억원, 수질개선분야 25,846억원)을 투자하여 88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구체적인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www.opm.go.kr)를 참고)

5. 맺음말

물 전문가인 Sandra Postel이 “강물은 다 어디로 갔는가?”라고 외치고 있듯이 하천은 점점 오염되어 가고, 무분별한 개발로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 모든 나라의 현실이며,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Times 등 세계의 유수한 여론들은 “과거 50년은 석유를 위해 전쟁을 했지만 앞으로의 50년은 물을 위해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나름대로 수자원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많은 투자와 노력을 경주하여 왔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문제는 이제 정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모두 동참하는 범국민적인 참여속에 그 해결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하류에 살고 있다 : Everyone lives downstream.”는 마음가짐을 갖고 집앞의 물이 나만의 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공유물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은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지구자원임을 다시 한번 깊게 인식하여 물문제해결을 위해 모두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